

원로회의, 추진위 건의 수용 '선학원 정상화' 힘 보탠다

지난 7일 총무원장 지승스님과 선학원 이사진들의 만남이 무산된 가운데 선학원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종단이 다시 한번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원로회의의 중재로 종단과 선학원 양측이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원로회의가 갈등 중재에 나서게 된 것은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법등스님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다. 추진위원장 법등스님은 지난 8일 열린 제49차 원로회의에 참석해 원로위원 스님들에게 선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원로위원 스님들은 의장단에 선학원과의 만남 일정을 위임했고, 원로회의 의장단에서 선학원 이사진에 만남을 제안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종단과 선학원의 갈등은 지난 2013년 4월 선학원 임시이사회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중흥을 봉대한다'와 '임원을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정관 내용을 삭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 2014년 6월 제198회 중앙총회 임시회에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 통과되면서 본격화됐다. 법인

총무원장 스님-선학원 이사진 만남 불발에도 대화 지속 예정

원로회의 의장단 스님 중재로 '선학원 이사진과 간담회' 예정

법에 대해 선학원 측은 "선학원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라며 반발했고, 선학원 이사장과 이사들은 종단에 제적원을 제출하고 탈종을 기도해 결국 별빈의 징계가 확정됐다. 이후 종단은 선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월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했다. 미등록법인에 대한 권리제한 역시 오는 31일까지 유예했다.

하지만 선학원 측은 법인관리법과 미등록법인에 대한 권리제한을 규정한 종헌 제9조3항을 이유로 계속해서 종단과의 대화를 거부해왔다. 오히려 행사교육원 개설 및

재단설치를 위한 교육위원회 구성 등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다. 지난 5월 추진위원장 법등스님이 제안한 △선학원 이사장과 이사 별빈 징계의 원상회복 △선학원 특별교구 지정 △총회의원 2석 배정 등 합의안에 대해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의 합의안을 비롯해 법인법, 종헌 제9조3항에 대해 논의하는 총무원장 스님의 만남 제안 역시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원로회의 의장단의 제안을 선학원 측이 수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스님은 "종단 어른 스님들이 선학원과의 만남 제안에 공감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 만남에는 원로회의 의장단 스님들과 선학원정상화추진위 상임위원들이 참석할 계획"이라며 "종단의 제안에 선학원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선학원과의 대화와 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종헌개정을 인준한 지난 8일 조계종 제49차 원로회의.

미등록 사설사암·법인 권리제한 '명확히'

■ 개정 종헌, 무엇이 달라졌나

종정 70세 이상, 방장은 대중사급 창건주 권리 승계 문구 확실하게

지난 8일 열린 조계종 원로회의의 제49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종헌개정안이 인준됐다. 이날 원로회의에서 인준된 종헌개정안은 7월15일자로 공포될 예정이다.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개정된 종헌은 기존에 비해 문구를 한층 명확히 한 점이 특징이다.

종헌 제9조 3항 미등록 사설사암 및 법인에 대한 권리제한 문구를 명확히 했고, 제94조 4항 사설사암 창건주의 권리 승계 문구 역시 분명히 했다. 또 종정 자격 조건 가운데 연령을 원

로회의 의원의 자격에 맞춰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했다. 원로의장의 임기도 단임으로 규정하고 총리 방장의 자격에 법계 대중

사급을 추가, 종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번 종헌 시행 이전에 추대된 방장 스님들의 경우 부칙 조항을 통해 종임할 수 있도록 했다. 조심호계원장을 비롯해 법규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 등 각급 위원장을 종회의 결의를 거쳐 선출토록 했으며, 교육원장, 포교원장의 자격 조건 가운데 법계를 현행 종사급에서 종사로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본종에 귀속되어 있는 사찰 및 사지 △통합종단 이후 본 종단에 등록된 사찰 △종단 및 종도가 설립한 산내암자 및 포교소 △사찰이 사실상 점유해 종교 고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이와 연결된 토지 △전통사찰보존지 및 역사문화보존구역 등으로 종헌에 명시된 사찰 및 경내지에 대한 구분은 사찰법에 맞게 수정했다.

이밖에도 종헌 제127조 징계의 종류에서 급급법계 문구를 법계 급급으로 수정했으며, 법급과 변상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다. 임태규 기자

계층포교 활성화 방안 공모 포교원, 8월 14일까지 접수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승스님)이 어린이·청소년(대학생 포함) 포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프로그램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포교원 정책과제로 설정할 수 있는 내용 △지역 사찰에서 청소년포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청소년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포교 방안 프로그램 △지역전반에 맞는 청소년 포교사업 등의 분야로 참여 가능하다. 공모전은 조계종 포교단체나 신도, 어린이청소년포교분야 활동가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수상작은 전국 사찰과 청소년포교단체 및 기구 등에 보급돼 활용하게 된다.

공모전 참여 희망자는 오는 8월14일까지 참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포교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오는 9월 공모전 시상식을 통해 대상에게 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박민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홍다영 기자
현장에서
hong12@ibulgyo.com

본사로 돌아온 범어사 칠성도

지난 8일 국외소재문화재단 관계자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지난달 스위스 경매에서 구매해 환수한 '범어사 칠성도'가 13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와 원래 소장처인 범어사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였다. 이 관계자는 "이번 환수가 단순히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것만은 아니다"며 "본래 있었던 사찰에 봉안돼 예배의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하게 된 특별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범어사 칠성도는 1861년 밀양 표충사에서 만들어진 뒤 범어사 극락전에 봉안돼 있었던 조선 후기 불화이다. 전문가들은 이 불화가 6·25 전쟁 이후 국외로 반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단은 해외로 반출됐던 문화재가 경매를 거쳐 원 소장처로 돌아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일제강점기가 아닌 한국전쟁 직후 혼란한 시기에 빠져나간 성보를 범어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가져왔다는 점에서 이번 환수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만약 사찰 측에서 환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 소중한 성보

는 또다시 먼 타국으로 내몰려졌을 것이다.

그기에 따르면 범어사 칠성도는 모두 11점. 그러나 이번 경매에 나온 건 3점이다. 재단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LACMA)에 소장돼 있는 칠성도 2점이 범어사 그림과 한 세트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머지 6점의 행방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재단은 범어사와 협력해 나머지 남은 칠성도를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이번 범어사 칠성도 환수를 계기로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외소재문화재단이 파악한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는 16만여 점이 넘는다. 그러나 한국전쟁 때 유출된 문화재는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문화재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국외 문화재의 소재를 면밀히 파악하고 문화재 피탈국간 국제 연대를 강화해 돌려받으려고 노력하는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다. 더불어 나머지 범어사 불화들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불교계도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대흥사 주지후보 월우스님 선출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제23대 주지 후보에 월우스님(사진)이 선출됐다. 대흥사는 지난 10일 경내 보현전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 출마한 전 영암 도감사 주지 월우스님을 신임 주지 후보로 선출했다. 이날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범어스님에게 당선증을 교부받은 월우스님은 "원용무에 살림과 화합으로 교구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과 문화포교에 힘써 호남불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월우스님은 1978년 천운스님을 은사로 출가



해 1978년 쌍계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80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승가대,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건국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중앙총회의원(12, 13, 14, 16대)과 총무원 호법부 조사국장, 중앙승가대 총무처장, 영암 도감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지구촌공생회 감사, 나눔의집 이사, 인천국제공항 경찰대 경승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이준엽 광주·전남지사장 maha0703@ibulgyo.com

본·말사 주지 인사 (7월8일 총무회의)



수경스님 서울 유희정사, 종하스님 서울 관음사, 종식스님 금산 선암사, 보일스님 포항 용암사, 영산스님 산청 내원사, 호법스님 부산 발원사, 해월스님 구례 봉명사, 보관스님 남양주 봉명사

www.mahaedu.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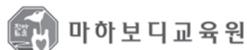
정토마을 마하보디교육원

41th 생사의 장 불교호스피스교육

"나에게 일주일이 주어진다면"

생사의 장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생사를 인생이란 한선에 놓고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성찰과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발견하게 하는 장입니다.

- 교육기간 _ 2015년 8월 2일(일) ~ 8월 8일(토) 6박7일
- 교육장원 _ 45명
- 교육비 _ 80만원
- 접수미김 _ 2015년 7월 20일(월) 도착
- 제출서류 _ 교육지원서, 사진(3×4) 1매
- 접수방법 _ 우편, 전화, 홈페이지, 방문, 이메일
- 접수문의 _ T. 052)255-8521~2 E. mahabodhi@daum.net H. www.mahaedu.org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Mahabodhi Meditation Psychology Graduate School

2015학년도(후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_ 임상상담전문가과정 00명
- 접수기간 _ 2015년 7월 1일(수) ~ 7월 31일(금) 18:00까지
- 접수방법 _ 우편, 방문, 이메일, 홈페이지
- 입학문의 _ 교학처행정실 T. 052-255-8521, 8523 F. 052-264-0209 E. mahabodhi@daum.net H. www.mahaedu.org

